

# 섬진강 명물 '강굴' 채취 확 줄어 '울상'

## 염분 높아져 수확철 광양 어민들 발동동

매년 2월 중순부터 5월초까지 섬진강 하류지역은 '강굴' 채취로 어민들의 손길이 바쁘다.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수확하기 때문에 '벚꽃'로도 불린다.

광양시 다압면과 진월면 망덕을 잇는 섬진강에서 채취하는 '강굴'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 수심 4~5m 강물 속에서 자란다.

크기가 30cm정도 되는 '강굴'은 단백질과 무기질,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주문이 쇄도하지만 물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셀레늄이 풍부해 피부노화 방지에 탁월하고 강장효과가 뛰어나 '바다의 비아그라'로 통해 일본 수출물량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적은 생산량 때문에 애를 태우고 있다.

광양 어민들은 "섬진강 하류가 바다에 침식당해 수계가 갈수록 오르며

염분농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강굴 서식지도 차츰 상류쪽으로 올라가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특히 "양식 기술이 아직 없어 찾는 소비량을 맞추지 못한것은 물론 해마다 생산량은 감소해 5년전 하루 채취량이 1t 있었는데 요즘은 수확량이 반으로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강굴'의 생산량 감소와 잠수부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채취어민들의 소득은 갈수록 줄어 많은 어민들이 떠나고, 현재 2~3명만이 전문적으로 채취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촌계 이성면(57·청하수산)씨는 "섬진강 중·하류 지역에 어초 등을 설치해 자연적인 강굴 서식환경을 조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관계기관에 대책을 호소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지역 어민들이 섬진강 하류에서 '강굴'을 채취하고 있다.

## LG화학 여수공장 '맛있는 봉사데이'

LG화학 여수공장(주재임원 안태성 전무) 사회봉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달부터 연말까지 9개월간 '맛있는 봉사데이'를 펼친다.

'맛있는 봉사데이'는 39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이 LG화학 사회봉사단에서 제공하는 요리체험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음식을 직접 만들어 경로당과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봉사활동이다.

봉사단은 지난 10일 동덕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에 이어 17일 안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과 함께 두번째 '맛있는 봉사데이' 행사를 갖는다. 이날 청소년들은 떡볶이를 만들어 지적 장애우 시설인 '에덴동산' 장애우들에게 전달 할



예정이다.

LG화학 홍보총괄 팀장은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하는 체험을 통해 나눔과 감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 NH농협은행 시음용 컵 50만개 전달

NH농협은행(은행장 신홍식)은 15일 여수 엑스포 '스카이다워 해수담수화시설' 체험시 관람객들에게 제공할 시음용 컵 50만개를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동식)에 전달했다.

바닷물이 식수로 변화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스카이다워 해수담수화시설'은 친환경 박람회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여수신항 내에 있던 시멘트 저장탑을 재활용, 예술적인 건축물로 만든 것이다.

관객들은 해수담수화시설내 설치된 음수대에서 NH농협은행에서 후원한 컵으로 담수화된 물을 마셔보고 컵을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다.



NH농협은행 신홍식 은행장은 "관객들이 시음용 컵을 사용해 보다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담수시설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수 세계박람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성공적 개최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박람회 앞둔 여수 최고급 호텔 속속 개관

### '엠블호텔' 오늘 오픈

가 16일 문을 연다.

국내 대표 레저기업 (주)대명레저산업에서 오픈하는 엠블호텔은 지상 26층·총 객실 311실의 특급호텔로 사업비 720억원을 투입, 지난 2010년 7월 착공했다.

오동도가 한눈에 보이는 '엠블호텔'은 최대 680명 수용 규모의 최고

급 컨벤션 시설을 비롯해 피트니스, 사우나, 스카이라운지, 파크골프장, 갤러리 등 각종 부대시설을 갖췄다.

또한 소단위 규모의 회의와 웨딩세레머니가 가능하며 비즈니스 센터에는 업무를 볼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과 첨단 시설이 구축되어 있다. '엠블호텔'은 남해안 중심지 여수의 빛나는 보석을 모티브로 건축

되었으며, 전체적인 객실 인테리어는 모던함과 한국 전통의 동양미를 조화시켰다.

한편 여수시가 박람회를 대비해 유치한 시설들로 '히든베이(Hiddenbay)호텔', 'U-캐슬(U-CAS-TLE)호텔', '니키아 (Benikea)호텔' 등이 4월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동부취재본부=임민택기자 mtlim@



여수시 소호동에 특급호텔 규모의 '디오션호텔'이 개장한 데 이어 박람회 기간중 전세계 국민급 VIP를 포함한 인사의 메인호텔로 운영될 '엠블호텔 여수'(THE MVL HOTEL YEOSU·이하 엠블호텔)

## 김충석 여수시장 학교급식 현장방문

"박람회 준비로 바쁘지만 교육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죠. 학교급식현장을 직접 살펴보고도 않고 막대한 예산을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김충석 여수시장은 15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 및 교육지원 현장방문에 나섰다. 김 시장은 이날 여수 좌수영초등학교에서 김영규 여수시의회의장과 장재익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윤문철 교육의원 등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급식 현장체험 행사를 가졌다.

김 시장은 학생들과 교직원 등을 격려하고 배식 봉사를 실시했으며, 학생들과 대화시간을 마련, 아이들의 예로 사



랑 등을 칭찬했다.

한편 여수시는 3월부터 의무교육 대상인 전체 초·중학교 102개교, 3만2234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 전 북

## "새만금 비산먼지 날아와 못살겠다"

### 부안 변산·하서면 주민 호흡기 곤란·농작물 피해 등 호소

부안군 변산면 등 일부지역 일부 주민들이 새만금 매립지에서 유입되는 비산(飛散)먼지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부안군 변산면과 하서면 지역민들에 따르면 올해들어 소금기를 머금은 새만금방조제 일대 매립토에서 비산먼지 발생이 두드러지면서 호흡기 곤란 등을 겪고 있다.

매립에 사용된 깃벌흙의 경우 육상 흙에 비해 알갱이가 작은 미립자로 구성돼 해상에서 육지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날리기 쉬운데다 소금기가 지 머금고 있어 농작물 피해도 우려된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새만금방조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바람이 강하고 건조한 3~4월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 1호 방조제 동쪽 9.9km(209만여평)에 조성될 예정이던 '새만금 관광단지' 공사 1km만 매립된 채 지연되면서 비산먼지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 A씨는 "해마다 이맘때면 새만금 쪽에서 불어오는 소금먼지로 인해 고통을 겪는데 올해는 우려가 강하다"며 "새만금 방조제 비산먼지에 대한 관계당국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 관계자는 "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잘 자라는 철면초와 나문재 같은 염생(鹽生)식물을 심는 등 꾸준하게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들어 비산 먼지량이 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비산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염생식물을 지난 2006년부터 35km에 식재해 자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다문화 여성들 "한국음식 배워요" 순창지역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지난 14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김치담그기와 된장국 끓이기 등 한국음식 요리법을 익히고 있다. 순창군 생활개선회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연스럽게 한국문화를 익히도록 하기 위해 요리교육을 실시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순창 문화유산 전국 어디서나 한눈에

### '디지털 문화대전' 구축

순창군은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3년간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지역역사와 지리, 문화유산을 인터넷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순창 문화대전'(이하 문화대전)을 구축한다.

군은 편찬사업 주관기관인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이달말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순창군지 편찬위원회'를 구성한 후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문화대전은 기존의 아날로그식 '순창군지'를 디지털화해

정·증보하고 지역의 각 분야 콘텐츠 정보를 조사 분석한 후 DB로 구축해 디지털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군은 교육과학기술부 국책사업인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과 연계해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국비 3억원을 더해 총 사업비 6억원으로 올해부터 3년간 편찬사업에 들어간다.

수북분야는 자연과 지리·역사·문화유산·성씨와 인물, 정치·경제·사회 등 9개 항목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단 신

### '전주 한지문화축제' 자원봉사자 모집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소장 시태봉)는 오는 28일까지 만 18세 이상 일반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2 전주 한지문화축제'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 120명을 모집한다.

활동분야는 운영, 체험, 전시 등 3개 분야이다. 접수는 센터 홈페이지(nanum.jeonj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jeonjuvs@hanmail.net) 또는 팩스(063-278-7490)로 보내면 된다.

전주 한지문화축제는 오는 5월 3~6일 4일간 열릴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페이지(nanum.jeonj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jeonjuvs@hanmail.net) 또는 팩스(063-278-7490)로 보내면 된다.

전주 한지문화축제는 오는 5월 3~6일 4일간 열릴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 군산시 '산단 민원센터' 이전 업무 개시

군산시는 산단 관리공단 1층에 위치한 '산단 민원센터'를 군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 이전해 오는 19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시는 지난 2009년 7월 군산·군산2 국가산단 입주기업이 인허가 및 기업간 수주계약 등 기업 활동에 따른 각종 제증명 발급받

으려고 25km 떨어진 군산시청까지 와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산단 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해왔다. 김창환 민원봉사 과장은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국가산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 정읍시 국제화 추진위원회 재구성

정읍시는 균형있고 효율적인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 지난 2006년 이후 중단됐던 '제4기 정읍시 국제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대룡)를 지난 14일 새롭게 재구성했다.

위원회는 언론·학계·문화예술·사회단체·법조계·여성단체 등 15명(위원장 1명, 당연직 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상·하반기 2차례의 회의를 갖고 국제교류 관련 중요 계획들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등 15명(위원장 1명, 당연직 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상·하반기 2차례의 회의를 갖고 국제교류 관련 중요 계획들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parks@

### 지리산 남원 고기리~도계삼거리 구간 개방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겨울철 통제했던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정령치~도계삼거리 구간을 16일부터 개방한다.

북부사무소는 시설작업과 낙석 제거 등 안전조치 후 개방하기로 했으나 현재 일부 결빙구간이 있어

통행시 주의가 요구된다. 북부사무소 순영조 탐방시설과장은 "일부 결빙구간이 있는 만큼 안전운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063-625-8911)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입장료 받아요"

### 6월1일부터 유료 운영

전주시는 오는 6월부터 한옥마을내 경기전(慶基殿·사적 제339호)의 입장료를 받기로 했다.

시는 15일 입장료 징수를 골자로 한 '경기전 관리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6월 1일부터 경기전을 유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전 관람료는 성인 1000원이며, 전주시민은 요금의 절반을 할인해 준다. 또 전주시민으로서 6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 명예시민, 홍보대사와 다자녀 가장 우대증을 가지고 있으면 무

료로 입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전 관람 시간도 제한된다.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의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1~2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여름철인 6~8월에는 1시간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입장할 수 있다. 시는 경기전 유료화와 함께 조선시대의 각종 제례를 재현하는 행사를 상설화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전은 태조 어진(왕의 초상화)을 봉안하고조 조선 태종 10년인 1410년에 창건했다가 불에 타 뒤 광해군 6년인 1614년에 증건한 한옥마을의 대표적 문화재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 익산 '안마 농기코리아' 준공

### 농기계 산업 중심지 자리매김

익산시가 농기계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왕궁농공단에 위치한 안마 농기코리아(㈜)가 지난 14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안마 농기코리아(주)는 90년 역사의 일본 안마농기(주)가 100% 직접 투자해 설립한 한국법인으로, 저연비 고효율의 친환경적인 농업기계(이앙기·콤바인·트랙터·관리기 등)를 생산·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번엔 왕궁 농공단에 50여억원을 투자해 9721㎡ 규모공장에 50여 명을 고용했다.

카시와키 노보히코 대표이사는 "익산공장이 안마농기의 생산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o0418@